

개회사

풍성한 결실과 나누는 것으로 마음까지 풍요로운 11월에 ‘불교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라는 주제로 순천시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소중한 마음으로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으로 대중을 끌어왔던 불교는 아시아의 역사와 함께 호흡하며, 오랜 세월동안 인류문화의 바탕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아시아 각국에는 여러 불교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산사 또한 자연환경과 조화된 아름다움과 수행과 신행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공간으로 민족의 삶과 떨어지지 않아 왔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한국의 전통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는 ‘한국의 전통산사’ 즉, 속리산 법주사, 태화산 마곡사, 조계산 선암사, 두륜산 대흥사, 천등산 봉정사, 봉황산 부석사, 영축산 통도사 등 7개 전통산사를 세계유산에 등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교유산은 아시아의 문화에서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티베트, 미얀마, 베트남, 태국 등의 지역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보편적입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에서는 이러한 대표적인 나라의 종교유산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불교유산을 고찰하는 자리입니다. 심도있는 고찰과 토론을 통해 불교유산 안에서도 우리의 산사가 가지는 고유성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더욱 명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학술회의를 위해 성심을 다해 참여해주신 발표자, 토론자 분들께 깊은 고마움을 전해 드립니다. 더불어 사찰관계자를 비롯하여, 주관을 맡아주신 (사)이코모스한국위원회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국의 전통산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문화재청장님과 12개 지자체의 단체장님, 실무에 힘써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공덕을 바탕으로 뜻 깊은 오늘이 또 하나의 주춧돌이 되어 ‘한국의 전통산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의전통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